

“다음 시즌에는 팀 우승에 기여하고자”

손흥민 “EPL 좋은 시즌 보냈으나 우승컵 못들어 아쉽다”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팀이 우승컵을 들지 못해 아쉽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손흥민(25)이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표했다.
 손흥민은 2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레포츠펀터에서 열린 AIA 생명 초청 토트넘 스폰서십 행사에 참석해 “아쉬운 시즌이었다. 다음 시즌에는 팀이 우승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토트넘 동료 벤 데이비스, 케빈 비버, 카일 워커도 함께 했다.
 토트넘에서 보낸 두번째 시즌에서 손흥민은 시즌 21호골(7도움)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차범근(83) 한국 선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골(19골)을 넘어섰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한국인 선수 통산 최다골(29골)도 같이 세웠다.
 종전 기록은 박지성의 27골이다.
 손흥민은 이날 오전 팀 동료들과 함께 서울 배화여고를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다.
 팀 동료인 빈 데이비스는 “큰 환영을 받았고 여고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큰 웃음을 나누어줬다. 또 이런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카일 워커와 케빈 비버, 벤 데이

비스 등이 자리에 함께 한 팀 동료들은 한국에서의 손흥민 인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케빈 비버는 “손흥민은 한국과 아시아에서 최고의 인기스타다. 공황에 미친 팬들의 규모를 보고 너무 놀랐다. 손흥민은 잘생겼고 에너지가 넘친다. 여기에 실력도 좋다. 앞으로 더 큰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박상 공황에 유니폼을 입고 나오신 팬분들 중에 내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빠질뻔 했다”며 “나 역시 놀랐다. 내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동료들이 내 기를 살려주는 것 같다”고 웃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손흥민과 팀 동료들은 장애인동 30여명을 대상으로 축구의 기본 기술을 알려주는 축구 클리닉 시간을 가졌다. 손흥민 등 선수들은 장애인동들에게 패스, 드리블, 슈팅 등을 설명하고 함께 미니게임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토트넘의 공식 스폰서인 AIA 생명의 한국 진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손흥민과 팀 동료들은 토코쇼, 축구 클리닉 등의 2차 3일간의 일정을 보내고 오는 25일 홍콩으로 출국한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과 키친BO(홍콩)의 친선전에 나선다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레포츠펀터에서 열린 AIA생명 행사에 참석한 토트넘 선수 방한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김민근기자

사라포바, 8월 로저스컵 와일드카드로 출전

도핑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마리아 사라포바(30·러시아·세계랭킹 173위)가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여자 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로저스컵 초청장을 받았다.
 AP통신은 24일(한국시간) “사라포바가 초청장을 받아 8월 로저스컵에 와일드카드 출전한다. 사라포바는 복귀 이후 3개 대회에 와일드카드 출전했다”고 전했다.
 칼 헤일 로저스컵 토너먼트 디렉터는 “사라포바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Meldonium)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라포바는 15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4월 말 징계가 끝난 사라포바는 WTA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 무투아 마드리드 오픈 BNL 이탈리아 인터네셔널에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출전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가 초청장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인기가 높은 사라포바에게 와일드카드가 주어지고 있다.”
 다만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로 오픈 측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라포바에 와일드카드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라포바는 7월 초 개막하는 윌빙단에는 자격으로 예선 출전이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2000루타 돌파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2000루타 고지에 올라섰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5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추신수는 2루타를 터뜨리는 등 시즌 9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 경기 전까지 1999루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개인 통산 2000루타를 돌파했다.
 시즌 타율은 0.257로 조금 올랐다 또 시즌 19타점째를 기록했다.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모두 외야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2로 끌려가던 5회초 2사 1루에서 동점 2루타를 터뜨렸다.
 보스턴 선발 릭 포셀로의 2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해 귀중한 적시타를 만들어낸 것.
 추신수는 7회 타석에서도 포셀로를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3-9로 뒤진 상황에서 추격의 적시타를 쳐냈지만, 텍사스는 1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추신수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139타를 치고도 6-11로 패했다.
 시즌 24승2패를 기록한 텍사스는 LA 에인절스(25승3패)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 자리를 지켰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신태용호,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 도전한다

16강 진출 조기 확정 따라... “내일 잉글랜드전 최소 무승부 거두도록 최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된 신태용호가 내친 김에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A조에서 기니와 아르헨티나를 연달아 격파하며 2연승으로 대회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3차전이다.
 한국이 잉글랜드마저 잡는다면 역대 최초 조별리그 전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기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한조에 묶이며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 추첨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도 “한국이 A조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경을 열어보니 달랐다.
 우승후보로 손꼽혔던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0-3으로 패했고 한국에도 달미를 잡았다.
 잉글랜드 역시 아르헨티나를 제압했지만 A조 최약체로 손꼽히는 기니와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처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A조에서 강팀으로 손꼽혔던 두 팀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니와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6강을 조기에 확정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16강 진출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할 처지

가 됐다.
 한국이 U-20 월드컵에서 이룬 최고의 성적은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의 4강이다. 이후 이 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은 34년만에 4강 이상의 성적을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함에 따라 잉글랜드전을 부담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체력이다. 1. 2차전을 치르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소모됐다.
 신태용 감독은 1. 2차전에서 투혼을 펼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인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생각중이다.
 골키퍼 송범근(고려대)을 포함해 정태욱

(아주대), 조영욱(고려대), 이상민(숭실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 이유현(전남) 등 6명이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31일 열리는 16강전을 대비해 조별리그 3차전 잉글랜드전에서는 그동안 경기에서 나섰던 주전 선수들과 출전이 적었던 선수들을 적절히 섞어 선발 명단을 짤 계획이다.
 신태용 감독은 잉글랜드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잉글랜드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조 1위를 차지해 유리한 위치에서 16강전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한국은 16강에서 C·D·E조 중에서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할 상대와 맞붙는다.
 신태용 감독은 아르헨티나전을 마친 후 “1차 목표는 2승 1무였다. 이제 80% 도달했다.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다.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잉글랜드전까지 최소 무승부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우리팀 분위기는 완벽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